**제1회 선교적교회 세미나**

**선교적 교회론의 실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actice of Missional Church)**

**강사: 최 형 근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

**Heart Stream 한국센터(선교사 멤버 케어센터) 공동대표**

**국제로잔위원회 동아시아 총무역임(2004-2011)**

**현 국제로잔위원회 신학위원세계복음주의 연맹 선교위원회 Associate**

**들어가는 말**

 이 글에서 필자는 선교적 교회의 태동배경과 발전을 다루고 변화하는 문화적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한국교회의 상황을 분석·평가를 통해 선교적 교회의 지표들을 제시하고, 선교적 교회의 본질과 리더십과 사역, 그리고 구조에 대하여 다루며, 한국교회의 선교적 교회의 사례들을 제시한다. 결론에서는 논의된 선교적 교회론의 실천적 담론에 근거하여 한국교회에 대한 간략한 평가와 미래의 전망을 제시한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관하여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기독교는 우리의 존재의 기반을 형성하는 이야기를 가리켜 거대서사라고 부른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이야기는 허구적인 단편이 아니라 우리를 실제적으로 구원하는 구속적 이야기다. 어떤 사회이든지 그 사회를 지탱하는 세계관과 연관된 이야기를 갖고 있다. 한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교회의 흥망성쇠는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에서 세계관과 연관된 질문들을 다시 묻고 대답하는 가운데 위기를 극복할 단초를 얻게 된다. 그 질문들은, (1)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2) 우리는 누구인가?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3)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4) 해결책(치료책)은 무엇인가? 무엇으로 그 문제를 고칠 것인가?; (5) 지금은 어느 때인가? 우리는 이 이야기의 어떤 지점에 처해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세상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전체에 기초가 된다면, 우리는 올바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1]](#footnote-1)

 역사적으로 교회에 관한 질문이 심각하게 제기된 때는, 교회가 지배문화와의 타협으로 인해 복음을 축소하고 변질시켜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였다. 교회는 항상 복음과의 해석학적 순환관계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세상과의 대면(encounter)과 세상에의 참여(engagement)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구현하는 가운데 복음을 살아낸다.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은 1974년 37년간 인도에서의 선교사역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가 영국교회의 모습을 보고 “과연 서구는 회심될 수 있는가?”(Can the West be Converted?)[[2]](#footnote-2)라는 예언자적 성찰을 담은 질문을 던졌다. 한국교회 또한 작금의 위기상황을 직시하며 “한국교회는 회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지점에 와 있다. 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위기의 근저에는 성경적 세계관과 배치되는 지배문화와의 타협으로 인한 복음과의 단절이 있다. “복음과의 단절”은,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역과 선교적 실천이 지배문화의 핵심적인 세계관에 따라 형성되고 결국에는 우상숭배, 즉 다양한 혼합주의의 형태로 귀결을 의미한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넘쳐나지만 교인들 뿐 아니라 목회자들의 실제적인 삶에서 그 의미는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많은 신자들이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기독교의 예수 따름, 즉 제자도의 실천은 진정한 공동체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 신약성경의 핵심인데, 제자도와 공동체의 결핍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아픔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 앞에 “선교적”이라는 단어를 붙인 운동이 시작되었다. 왜 “선교적”이라는 단어가 붙었는가?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 뉴비긴이 시작한 영국의 GOC(Gospel and Our Culture) 운동의 영향을 받은 젊은 미국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우리 시대에 서구문화와 연관된 선교적 참여는 무엇인가?”라는 뉴비긴의 질문에 답하려는 한 운동이 형성되었다. 이 운동의 영향력은 1980년대 중반 미국으로 초청된 뉴비긴의 강연을 통해 조지 헌스버거(George Hunsberger)에 의해 “네트워크”의 형태를 띠게 되었고, 여러 선교학자들을 통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1990년대 초 미국교회가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소비주의로 인해 교회의 공신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음과 우리문화 네트워크”(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 GOCN)는 미국교회와 미국문화에 대한 선교적 통찰과 분석을 담은 연구서들을 출판하며 그 영향력을 확산해 나갔다. 글로벌 차원에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관심은 1998년 GOCN(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 운동의 선교적 교회에 관한 대화(Missional Church Conversation)의 결과물인 *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의 출판을 기점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뉴비긴의 선교학은 그가 총무로 있었던 국제선교협의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IMC)와의 연관성 안에서 형성되었다.[[3]](#footnote-3) 1950년 초부터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은 선교에 대한 삼위 일체적 이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칼 바르트(Karl Barth)와 핸드릭 크레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그의 선교적 교회론은 1952년 독일의 빌링겐(Willingen) IMC회의에서 칼 하르텐슈타인(Karl Hertenstein)이 주장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근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후에 호켄다이크에 주도하에 WCC의 주요 의제가 되었다. 호켄다이크에 의해 발전된 하나님의 선교개념은 1968년 WCC 웁살라 총회에서 교회중심의 선교를 하나님과 세상과의 직접적인 관계로 축소되어 선교의 세속화와 인간화의 개념으로 규정되므로 교회의 역할을 축소시켜 선교에 있어서 교회론의 위기를 초래했다. 이에 대해 뉴비긴은 “하나님의 선교라 불리는 이 교리가 때로는 교회와 심지어 예수의 이름까지 회피하는 선교 개념을 지지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고 비판했다.[[4]](#footnote-4)

 뉴비긴의 선교에 대한 이해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 성령을 통해 교회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놓여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로 이해되며 하나님 나라의 구속적 통치가 현존하는 표시로서 세상 안에 이루어진다. 교회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적 통치의 종말론적 미래를 “미리 맛보게 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존재한다. 또한 교회는 모든 삶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구속적 통치를 초래하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선교의 도구로서 섬김의 역할을 감당한다. 뉴비긴은 “선교는 단순히 교회의 삶 속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능력을 발휘함으로 인한 교회의 자기선전이 아니다. 능동적인 선교의 동력은 교회를 앞서서 다스리고 인도하며 전진하는 힘이다. 교회가 선교를 기반으로 하여 시작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령의 활동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5]](#footnote-5) 그의 신학은 교회, 교회의 선교, 그리고 연합에 그 신학적 뿌리를 두고 있다. 포레스터(Duncan B. Forrester)는 뉴비긴의 신학이 칼 바르트를 중심으로 1930년대에 일어난 독일교회의 갈등과 에큐메니칼 신학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특히 그의 선교신학은 교회의 신학이고 공적 신학(a public theology)이라고 주장한다.[[6]](#footnote-6) 뉴비긴은 교회와 선교의 불가결한 연관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선교이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교회의 선교이다. 또한 복음의 본질은 교회를 보다 참된 교회로 만들고 세상에 대해 보다 참된 선교를 하게 한다는 핵심으로 돌아가게 만든다. 기독교 연합운동과 세계복음화의 연계성은 가장 심오한 특징이다. 이 두 요소들은 복음 그 자체의 핵심으로 회귀하는 두 외적인 표지이다.”[[7]](#footnote-7)

 헌스버거는 선교란 “문화에 대한 선교”로서 문화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형성하는 문화와 그 문화에 의해 형성되는 사람들에 대한 복음의 도전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8]](#footnote-8) 즉 선교란, 기존사회의 질서와 지배문화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의 도전으로서 선교를 의미한다. 그는 GOCN 부상의 중요한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1) 우리 문화에 대한 문화적, 사회적 분석, (2) 우리가 직면한 상황에서 복음의 의미에 대한 신학적 성찰; (3) 현 상황에서 교회의 갱신과 선교적 정체성.[[9]](#footnote-9) 즉 선교적 교회론은 복음과 문화 사이에 위치한 교회가 기존의 지배문화에 길들여져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자신감을 갖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세상을 변혁해 나가는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실천적 교회론이다.[[10]](#footnote-10) 오늘날 성서학계에는 크리스토퍼 라이트(Christopher Wright)와 톰 라이트(Tom Wright)와 같은 영국 성서학자들을 중심으로 선교적 성경읽기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성경을 하나님의 거대서사로 보며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선교를 두므로 성경의 형성이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주장한다.

 선교적 교회라는 신학적 개념이 서구의 문화적 상황을 다루며 서구교회의 위기를 극복해 보려는 시도에서 출발했는데, 이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적용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복음과 교회와 문화 사이의 선교적 참여”라는 뉴비긴의 선교적 의제는 서구교회의 내부적 문제들, 특히 북미교회의 실재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비서구 교회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었다. 영국(또는 유럽)과 북미의 상황이 동일하지 않고 북미의 교파적 구조의 발전이 유럽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나지만, 분명한 사실은 북미도 선교현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회와 선교학계에서 선교적 교회론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시기는 바로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상실하고 정체되어 가고 있었던 때였다. 따라서 한국적 상황이 유럽이나 북미와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한국 사회문화도 포스트모던 세계관과 종교다원주의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북미의 영향이 한국 사회문화와 교회의 삶 전반에 스며들어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선교적 교회에 대한 한국교회와 선교학자들의 관심이 적절한 때에 표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I. 한국교회의 선교적 교회 운동**

 서구교회의 위기가 초래한 선교적 교회론이 한국교회에 어떤 교훈과 도전을 줄 수 있는가? “한국교회는 복음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는가?” 선교적 교회론은 복음으로의 회귀이며, 교회의 지속적인 회심과 연관된 교회론이다. 한국교회의 상황과 선교적 문제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구교회가 걸어온 자취들을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구교회는 AD 4세기 초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한 이래 엄청난 변화를 겪어왔다. 즉 교회와 국가의 타협으로 인해 중세교회는 그 본질적인 활력을 상실하고 제도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서구교회는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의 세계관의 타협을 통해 기독교의 본질에서 점차적으로 벗어나게 되었다. 즉 현대교회의 바벨론 유수상태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현대교회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구교회의 뒤를 이어 세계선교의 첨병 역할을 자인하는 한국교회는 1980년대 말까지 그 활력을 유지해 왔으나 1990년대에 진입하면서 다방면에 걸쳐 서구교회가 걸어온 길을 답습하고 있으며,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성장정체와 공적인 영역에서 그 영향력을 급속하게 잃어가기 시작했다. 21세기 들어 14년이 지나가는 현재, 한국교회의 현 상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은 한국교회의 갱신과 개혁을 위한 중대한 과제로 인식된다.

 선교적 교회 옹호자들은 선교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기에 선교는 더 이상 전적으로 외국에서 하는 어떤 활동이 아니며 지리적이나 문화적으로 정의될 수 없으며 “보내는 교회”와 “받는 교회”와 같은 낡은 구분들을 거부한다. 모든 곳에서 모든 교회는 자신을 선교적 교회로 이해해야만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들을 “보냄 받은” 선교사로 이해해야만 한다. 선교와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재고하게 만든다. 교회 외부의 도전보다는 오히려 교회 내부의 문제들로 인해 위기감을 감지하고 있는 한국교회도 점차적으로 지배문화에 대해 대항문화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선교적 교회에 관해 말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복음의 본질에 천착하고자 하는 시도이며, 복음에 관해 이야기 한다는 것은 그 복음이 소통되고 변혁을 일으키는 문화와의 연관성에서 고찰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복음과 문화 사이에 있는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은 본질적으로 선교적 질문이다. 교회가 복음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결국 교회의 “대조사회적이고 대항문화적인 특성”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한국의 사회문화 가운데서 복음을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과연 교회가 복음을 말(word)과 행동(deed)으로 증언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과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를 교회라고 볼 수 있는가? 교회의 교회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전통적으로 북미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한국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예외 없이 극단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교회성장이었다. 그런 가치관은 크기와 숫자에 대한 집착, 구조와 형식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인해 사역의 획일화와 경직성을 낳았다. 뉴비긴은 “교회가 새로운 사회적 질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헌은 교회 자체가 새로운 사회(정치)적 질서가 되는 것”이라고 단언한다.[[11]](#footnote-11) “교회는 이 시대의 거짓된 경제, 사회, 정치적 이념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담대하게 대항해야만 한다.”[[12]](#footnote-12) 교회가 정치, 경제적 영역 밖인 사적인 영역에서만 기능하는 것은 지배문화에 대한 타협이자 참담한 패배이다.

 한국교회는 2000년 초반부터 소수의 선교학자들을 중심으로 선교적 교회 운동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그 개념과 서구적 전개와 발전, 그리고 적용사례들을 소개해 왔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의 개념의 모호성과 더불어 서구적 상황을 염두에 둔 이 운동을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난점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 운동의 약점으로서 이 운동이 서구교회 내부의 위기와 문제들에 초점을 두므로 해외선교운동에 대한 강조의 약화를 지적하고 있으며, 다른 한 편에서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적절하게 수렴되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한국교회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고려할 때, 선교적 교회 운동의 한국적 적용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개혁과 갱신을 이룰 한 대안적 모색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서구적 사고는 모든 것들은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서구의 상황이 한국의 상황과 차이가 있기에 한국적 상황에서 선교적 교회를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요청된다.

 현재 한국교회와 선교현장, 그리고 디아스포라 상황(특히 북미 한인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를 추구하는 운동들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한국교회에 선교적 교회가 본격적으로 소개된 시기는, 한국교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던 2000년대 초반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 수학한 소수의 선교학자들에 의해 선교적 교회(특히 레슬리 뉴비긴의 사상) 개념이 소개되었다. 2000년대 중반 부산 일상사역연구소(지성근 소장)에서 선교적 교회 운동이 출발되어(교회 2.0 목회자운동과의 연합) 2012년 미션얼 운동으로 전환(2012년 12월) 일상생활사역연구소와 한국선교연구원[KRIM]이 공동포럼을 개최하여 다양한 모델들과 의견들을 수렴하여 지속적인 논의를 하였고, 2013년 12월 제2차 미션얼 포럼을 통해 선교적 교회의 리더십을 사례중심으로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2010년 초반 장신대 한국일, 성석환 교수 등을 중심으로 선교적 교회 운동의 확산을 위한 지역교회 목회자들의 모임이 출범되어, 지역교회의 사례들을 발굴하고 공유하게 되었다. 금년 2월에는 바른교회아카데미 연구위원 세미나에서 “지역속의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교회의 지역성에 대한 논의와 사례들이 제시되었다. 2014년 3월-6월까지 “프론티어 스쿨”을 열어 “숲”이라는 이름의 교회개척학교를 시작한다. 이 운동은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응하여 선교적 교회의 관점에서 교회개척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고 그 실천의 장을 여는데 있다. 현재 해외 선교지의 상황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지는 가운데, 한국 선교사들도 후원금 부족현상으로 인한 생존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교적 교회를 개척하고 BAM 모델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13]](#footnote-13) 또한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과는 다소 다른 점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도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양상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동시에, 1세대와 이민 2-3세대 젊은이들과의 괴리감이나 성장의 한계 등으로 인해 새로운 출구를 통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예수교회의 모델은 미국문화 가운데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선교적 교회의 원리를 적용하는 좋은 사례로 제시된다.[[14]](#footnote-14)

 선교적 교회의 원리들이 한국교회에 적용되는 방식은 주로 작은교회 운동(교회개척 사례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특히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지역이나 마을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여 정착하는 과정은 쓰라린 고통과 아픔과 실패의 경험을 동반해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은 일터교회, 비즈니스 방식의 사역과 선교, 지역과 함께하며 지역의 삶에 참여하는 사역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역에 대한 중요성은 “교회의 지역적 특성”의 강조로 드러난다. 또한 작은교회 개척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BAM과 접목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시도된 것으로서 특히 작은교회들의 자립과 목회자의 생계문제(2014년 4월호 목회와 신학에서 성직자의 이중직 문제 다룸)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시도들과 사례들이 제시되고 있다.

 선교적 교회론이 오늘날 교회의 위기를 타개할 본질적인 해결방안들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한편에서는 그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학문적이라는 비판과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북미와 호주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선교적 교회를 위한 실제적 안내지침과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북미의 교회들은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가 한국교회처럼 강한 계층구조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들은 목회자 중심의 리더십 형태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교회를 살리고 지역교회의 대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인제사장직을 실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평신도의 선교적 의식전환이 핵심이다. 교회가 신자들의 신앙을 공적인 차원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교회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서구에서 유래된 많은 교회성장 프로그램들과 불신자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고 신자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다양한 소그룹 프로그램들을 실시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성장지향적인 경쟁논리에서 나온 효율성 중심 프로그램들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성찰과 선교적 의식의 전환 없이 기존의 교회구조와 조직에서 선교적 교회를 운운하는 것은 또 다른 효율성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락할 위험성의 소지가 있다. 한국의 몇몇 중대형교회들을 중심으로 선교적 교회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징후라고 볼 수 있지만, 이미 고착화된 구조와 조직 안에서 소수의 지도자들의 주도로 교회를 선교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선교적 교회는 새롭게 부상하는 세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로 훈련하고 양육하는 가운데서 성서적 세계관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선교와 교회가 여전히 분리되어 있고 대부분 선교를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로 인식하고 있는 한국교회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교적 교회에 관해 알릴 수 있는 선교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교회의 본질이 선교이고, 그 본질에서 모든 교회의 사역들이 나와야 하며, 교회의 본질과 사역의 내용에 의해 교회의 구조나 조직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보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제기되고 교회의 삶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교회의 본질이 선교라는 주장을 한다고 해서 교회가 그 본질을 자동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모든 차원에서 선교적이지만, 교회의 삶의 양태는 조직이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활동을 필요로 한다. 문제는 그것들이 얼마나 선교적인 차원에서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는가이다. 동일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의 표지이며 미리 맛봄이고 예표하는 성령의 공동체이며 종말론적인 공동체이지만, 이러한 개념들이 모든 신자들의 의식차원에서 인지되고 지역과 일터라는 일상의 삶에서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회 내적인 갱신이 일어나야만 할 것이다. 디시 말하자면, 교회가 본질상 선교적이라는 것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교회가 자동적으로 그 선교와 일치를 이루며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교회는 의도적으로 선교적으로 살아가고 선교적 우선순위들을 세워야만 한다.[[15]](#footnote-15)

**II. 문화 변화의 표지들과 선교적 교회의 대응 원리**

 서구의 선교적 교회론이 다원주의적이며 복음에 적대적인 후기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에서 기인한 교회의 위기에서 비롯되었듯이,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한국교회의 성장정체와 공적영역에서 교회의 공신력 추락은 한국 사회문화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오늘날 교회는 문화변화에 민감해야 한다. 변화는 대개 두 종류의 압력이 가해질 때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나기 전의 사회는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의 압력이나 외부의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하면 사회 구성원들에게 스트레스가 주어지고 불만과 위기감의 증대하며 아노미 현상이 나타난다. 변화에 대처하는 메커니즘은 한 사회가 갖고 있는 민족적 응집력 내지는 문화적 결집력에 따라 달라진다.[[16]](#footnote-16) 한국교회는 기독교 선교 초기부터 현재까지 신앙적, 민족적 응집력을 가지고 교회성장과 세계선교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변화는 혼합된 실재로서 교회의 삶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해악이 되기도 한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급진적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따라서 현재의 변화가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반 겔더(Craig Van Gender)는 “교회는 상황적 변화의 전면에 서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재상황화(recontextualize)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17]](#footnote-17) 어떤 상황은 오랜 기간에 걸쳐 느리게 변화되며, 다른 상황은 강한 영향을 받는 가운데 급격한 변화를 겪기도 한다. 현재 한국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미국적 신학과 교회론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는 상태이므로 재상황화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한국교회들은 신학과 사역의 재상황화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들을 수립할 시기와 징조를 파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한 조짐은 한국교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성장정체 뿐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본질에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는 데서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많은 교회들이 문화변화에 대해 부적절하게 대응하므로 새로운 세대들을 복음으로 초대하여 회심으로 인도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변화에 대한 많은 교회들의 반응은 대개 반작용(reaction)으로 끝난다. 즉 기껏해야 교회의 구조변경이나 조직을 재구성하고 미국교회의 프로그램이나 예배형태들을 무비판적으로 모방하는데 그치고 있다.

 반 겔더는 변화하는 문화적 상황에 대한 반응의 형태들을 3가지로 제시한다.[[18]](#footnote-18) 첫째는 상관성(relevance)인데, 전형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부상하는 문화적 요소들에 사역을 맞추는 것이다. 문화적으로 상관적인 사역은 효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교회의 사역이 일시적으로 문화적 형태들을 무비판적으로 적용하거나 추구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형태는 새롭게 부상하는 세대들을 목표로 한 구도자 예배형태나 음악적으로는 CCM 형태로서 매우 실용적이고 성공 지향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윌로우크릭 교회와 새들백 교회 같은 미국 교회들은 좋은 의도와 나름대로의 성서적 관점을 가지고 신세대들에게 접근하지만, 복음의 본질과 신학적 타당성, 그리고 기독교 전통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단지 문화적으로 상관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둘째, 많은 교회들이 변화하는 문화적 상황에 대한 저항(resistance)으로서 변화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 형태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통을 고수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성향은 미국의 주류교단 교회들이 추구하는 성향에서 나타난다. 변화를 회피하고 전통을 유지하려는 교회는 교리적인 충실성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세대에 대한 대안적 사역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정체를 겪게 된다(예를 들어, 교리적인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국교회들의 경향). 셋째, 적응(adaptation) 형태는 교회가 교단의 역사와 전통을 유지하는 가운데 문화변화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이다. 즉 변화하는 문화적 상황에서 선별적으로 적응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이 적응 전략은 주로 교회 내부에 초점을 두게 되며 교회 전통에 지나치게 집중하므로 변화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에는 너무 늦게 된다(예를 들어, 문화변화에 따라 피상적인 프로그램들이나 본질 외적인 것에 초점을 두는 중소형교회들).

 위의 접근들은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고 괴리되거나(overcontextualization, 상관성, 적응) 변화하는 상황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undercontextualization, 저항)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변화에 대응하는 이러한 접근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데, 그것은 성서에 근거하고 문화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선교적 교회로서 성령에 의해 창조되고 이끌리는 교회이다. 반 겔더는 변화하는 문화적 상황에 확고하게 대응하는 선교적 교회는 항상 복음을 위해 부름 받고 복음의 전파와 살아냄을 위해 세상으로 보냄 받은 교회로서 형성되는(forming) 교회이고 재형성되는 교회(reforming)라고 주장한다.[[19]](#footnote-19) 그에 따르면, 교회는 항상 고백적인 동시에 선교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고백적이라는 의미는, 교회가 역사적 기독교 신앙과의 연관성 가운데 그 정체성을 주장하고 재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며, 선교적이라는 의미는 교회가 사역에 있어서 주어진 문화적 상황과의 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상황화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20]](#footnote-20)

선교와 고백(개혁)이라는 이 두 요소들의 균형은 교회에 관한 진리를 드러내며 성령에 이끌리는 사역의 중요성, 즉 연속성과 변화 간의 균형과 창조적 긴장을 보여준다. 이 두 요소는 교회를 형성해 나가는 선교적 역량으로서 “밖에서 안으로”(outside in), 그리고 교회를 재형성해 나가는 개혁적 역량으로서 “안에서 밖으로”(inside out)라는 방향성을 나타낸다. 즉 교회는 지속적으로 개혁되어야 하는 한편, 항상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서 선교적 교회로서 형성되어야 한다. 선교적 교회의 이러한 특성은 성령에 의해 창조된 교회로서의 특성을 반영한다. 선교적 교회는 복음의 렌즈를 통해 변화하는 상황과 교회의 전통을 읽어 나가는 능력을 추구한다. 따라서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를 이해하는 근거이다. 교회를 창조하고 세상 가운데 교회에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표지들을 부여한 분은 성령이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순례하는 공동체로서 성례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축하는 특성을 지니며,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대안문화적이며 대항문화적인 공동체가 되어간다.

**III. 선교적 교회의 지표**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과 문화의 만남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낸다. 선교적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의 목표나 희망 때문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사역의 결과로 인해 존재한다. 따라서 교회를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며 세상 안에 현존하는 교회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부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교회의 긴 여정이다. 이 여정은 어떤 강력한 힘에 이끌리어 변화와 갱신을 추구하는 반구조적(anti-structure) 특성을 갖고 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변화를 주저하고 현실에 안주하기 원한다. 그것은 교회들이 극단적으로 제도화되어 있고 본질을 잊고 있으며 경직된 구조와 프로그램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물론 모든 변화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교회의 변화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과 부합하지 않을 때, 그 변화는 복음을 축소하거나 혼합적인 성향을 띠게 되어 지배문화의 포로로 전락하게 된다. 반 겔더는 교회의 본질과 사역과 조직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교회는 존재한다. 교회는 존재하는 모습대로 행한다. 교회는 행하는 그것을 조직한다.” 이 규정이 의미하는 바는, “교회의 본질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현존에 기초한다. 교회의 사역은 교회의 본질로부터 나온다. 교회의 조직은 교회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다.”[[21]](#footnote-21)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은 선교적 교회의 실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순서가 역행되면 교회의 사역은 왜곡되고 본질과는 괴리되며 제도적이고 권위적인 구조와 조직으로 함몰될 수밖에 없다.

 록스버그(Alan Roxburgh)는 선교적 교회에 관한 많은 오해들을 해소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가 *아닌* 현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복음전도 프로그램; (2) 새로운 방식의 해외선교 사역; (3) 교회성장 방법; (4)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의 사역방식; (5) 포스트모던 방식의 교회 사역; (6) 반 전통적인 교회의 형태(이머징 교회 등).[[22]](#footnote-22) 유사한 관점에서, 로잔 신학위원회는 교회론에 문제가 있는 교회의 형태들을 유비적으로 지적한다: (1) 컨테이너 교회(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가게 하기 위한 교회); (2) 하베스트 교회(교회가 최대한 추수를 열심히 하면 마지막 날을 앞당길 수 있다는 사고방식); (3) 라이프보트 교회(교회의 지배적인 목적은 침몰하는 세상에서 더 많은 영혼을 구하는 것).[[23]](#footnote-23) 선교적 교회로의 변화는 현상유지에서 선교로, 멤버십에서 제자직으로, 목회자 중심에서 하나님의 전 백성(평신도) 중심으로, 교회건물 중심에서 타자와 함께하는 교회로,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정착구조에서 파송구조로의 변화이다. 이 모든 요소들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대위임령, 제자직, 그리고 청지기직이다. 선교적 교회는 제도적 현상유지나 생존모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이다.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시고 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두 개의 질문을 던진다. 선교적 교회는 이 세상에서 대조사회 혹은 대항문화가 되는 교회의 모습을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부름 받고 세상으로 보냄 받은 하나님의 순례하는 백성들의 공동체이다. 즉 선교적 교회는 복음과 문화 사이에 서 있는 교회이다.[[24]](#footnote-24)

 2004년 GOCN은 “선교적 교회의 모델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통해 선교적 교회에 관한 12개의 지표들을 제시했다. 첫째, 선교적 교회는 복음을 선포한다. 선교적 교회의 복음 선포는, 뉴비긴이 말한 대로, 이 세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삶의 전 영역에 미친다는 공적복음과 공적신학의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교회가 선교사이며, 모든 신자들은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만인제사장직의 의미를 담고 있다. 둘째, 선교적 교회는 모든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배움의 장에 참여하는 예배와 친교의 공동체이다. 선교적 공동체는 제자직을 실천하기 위해 공동체 안에서 양육 받고 성장하며 변화하는 공동체이다. 셋째, 성서는 선교적 교회의 삶의 규범이다. 선교적 교회를 통해 신자들은 성서를 알고 성서에 계시된 말씀에 복종한다. 듣고 읽고, 연구하고 복종하는 것은 교회의 전 삶을 통합한다. 성서는 공동체적으로 연관된다. 넷째, 선교적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존재로서 자신을 이해한다. 그 이유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 의미는, 세상의 지배문화가 제시하는 기준을 따라서 교회의 삶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로서 헌신한 신자들의 교회이다. 선교적 교회의 독특한 행위는 세상의 패턴들과 부합하거나 양립하지 않는다(롬 12:2). 다섯째, 선교적 교회는 모든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적 소명을 분별한다. 교회는 공동체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 즉,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고 교회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며 무엇을 행하기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 여섯째, 선교적 공동체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행하는 방식에 의해 규정된다. 교회의 사회 전방에 걸쳐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은 자기희생을 통해 나타난다. 일곱째, 선교적 교회는 화해를 실천하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인종적, 종족적, 성별, 나이, 그리고 사회문화적 계층을 초월하여 화해를 이루는 공동체이다. 여덟째, 선교적 공동체에 속한 신자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에 대한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것은 상호간의 사랑과 기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책임이다. 아홉째, 선교적 교회는 환대를 실천한다. 열 번째, 선교적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열한 번째, 선교적 교회는 활력적으로 공적인 증거를 하는 공동체이다. 마지막으로,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의 불완전한 표현이다.[[25]](#footnote-25) 선교적 교회의 지표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준거는 기독론에 근거하여 선교가 결정되며 선교는 교회의 존재양식을 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육신적 선교는 성육신적 교회를 형성한다.[[26]](#footnote-26)

 선교적 교회의 지표들을 고찰하며 필자가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원리들은 다음과 같다. 작은 교회들에게 필요한 목회적 원칙과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교회 안에 내재하고 있는 크기와 숫자와 프로그램 같은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파악하고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라. 둘째, 그 본질에 기초하여 사역의 비전과 원칙을 세우고 말씀에 집중하라. 셋째, 교회가 보냄 받은 지역의 필요를 파악하고 성장을 위한 다른 모델들을 무비판적으로 모방하고 수용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라. 넷째, 목회자 자신이 물질과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공동체에 본을 보일 수 있는 단순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 예수 따름이라는 제자도에 근거한 리더십을 구축하라. 다섯째, 교회 분립이나 분가를 위해 교회의 개척초기부터 신자들을 훈련하여 만인제사장직을 실제적으로 교회의 삶 속에 구현하고 교회 조직과 시스템을 단순하게 구축하라. 여섯째, 참된 공동체를 통해 예배와 증거의 균형을 유지하라. 부름 받음(calling)과 보냄 받음(sending), 그리고 지어져 감(forming and reforming)의 균형을 유지하라. 일곱째, 교파와 교리가 절대적인 규범으로 작동하는 제도화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종말론적 운동이 되라.[[27]](#footnote-27) 이러한 지표들은 교회의 존재양식을 규정하고 교회의 사역의 방향을 지시하며, 교회의 구조와 조직이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의 리더십의 양태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안내하는 시금석이다. 오늘날의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상황 가운데 선교적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IV. 선교적 교회의 리더십, 사역, 구조**

 기독교에 리더십은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은, ‘아니다’와 ‘그렇다’이다. 먼저 기독교에 리더십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선생이자 영원한 주님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분을 넘어설 수 있는 자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다(followers and disciples). 이러한 의미에서 기독교에는 “팔로워십”(followership)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리더십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이 세속적인 리더십 왕국(secular leaderdom)이 주장하는 온갖 리더십 이론들에 근거한 것이 아닌, 예수 따름의 원리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즉 예수 따름이라는 제자도와 종으로서의 섬김의 자세 없이는 기독교의 리더십을 말할 수 없다.[[28]](#footnote-28)

 실제로 기독교 서점이나 신학교 도서관에는 제자도와 연관된 제자훈련 책들보다 일반적인 리더십이나 기독교 관련 리더십 책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자도 없는 리더십은 성경적인 관점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로잔 케이프타운 서약은 제자도와 리더십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많은 지역의 급속한 교회 성장이 피상적이고 취약한 성장이 되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제자화된 지도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이들이 세속적인 권력과 높은 신분을 얻기 위해, 또는 개인적 축재를 위해 그들의 지위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을 겪고, 그리스도는 수치를 당하고, 복음의 선교는 훼손되고 있다. 종종 ‘리더십 훈련’이 중요 한 해결책으로 제안된다. 실제로 온갖 종류의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첫째, 훈련을 통해 지도자들을 경건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다. 성경적으로 보면, 삶을 통해 이미 성숙한 제자도의 기본적인 특징을 드러내는 사람들 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지도자의 지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자의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들의 리더십 개발에 기본적 제자 훈련을 포함시키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오늘날 세계 교회에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세속적인 리더십이 만연한 것은, 여러 세대에 걸친 축소된 복음 전도와 제자 훈련의 소홀과 피상적인 성장의 부끄러운 결과일 것이다. 리더십 실패에 대한 해결책은 더 많은 리더십 훈련이 아 니라 더 나은 제자 훈련이다. 지도자는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여야 한다. 둘째, 어떤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은 경건한 성품은 소홀히 하 고 지식과 방법론과 기술 전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는 대조 적으로 진정한 기독교 지도자들은 종의 심성과 겸손, 온전함과 순결함, 탐욕 없는 마음과 기도,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의존과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을 지닌 그리스도를 닮은 이들이다. 나아가 어 떤 리더십 훈련 프로 그램은, 바울이 지도자의 자질 목록에 포함 시킨 가장 중요한 기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훈련이 결여되어 있다. 성경을 가르치는 기술은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한 최상의 수단이지만, 오늘 날의 교 회 지도자들에게는 가장 심각하게 결여된 부분이다.[[29]](#footnote-29)

 교회의 교회됨, 즉 교회의 존재양식은 교회의 사역과 행동을 결정한다. 기독교 왕국 세계관에 근거한 교회의 특성은 폐쇄된 시스템(closed system)으로서 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성향을 보이며, 계층적이고 관료적 리더십의 형태를 갖고 있다. 전통적 교회의 리더십은 고객(?)의 필요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그에 부합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교회의 구조와 조직이 사역을 결정하는 어이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선교적 교회의 리더십은 성육신적 리더십이고 섬김의 리더십, 즉 약함의 리더십이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도적 리더십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선교적 교회의 리더십은 교회의 본질에서 나와야 한다. 선교적 공동체 형성의 열쇠는 리더십이다. 급속한 사회문화의 변화에 직면한 교회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띨 수 있다. 변화의 중심에 있는 교회에게 중요한 요소는 리더십이다. 선교적 교회의 리더십은 사회문화적 틀(framework)이 와해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세계화, 급격한 기술의 발전, 포스트모던주의와 종교 다원주의의 부상, 세계경제의 와해 등과 같은 불연속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교회의 본질을 제시하고 그 본질에 근거하여 사역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공동체 내에서 대화의 장을 형성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리더십은 성령의 은사로서 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교적으로 형성하고 구비하는 것이다.

 글로벌 상황에서 서구교회는 점차 소수자로 전락하고 있으며, 글로벌 문화는 교회의 정체성에 심각한 도전과 위협을 가하고 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의 상황과 유사한 문화적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교적 교회의 리더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의해 형성된다. 이러한 리더십은 설교나 가르침 이상의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도적인 리더십이다. 둘째, 선교적 리더십은 오순절 공동체의 성령 체험에 의해 형성된다. 셋째, 선교적 리더십은 종말론적인 긴장에 의해 형성된다. 넷째, 선교적 리더십은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백성들을 형성한다.[[30]](#footnote-30)

 이러한 초대교회의 리더십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면서 기독교 왕국의 세계관에 근거한 “성직자 중심의 리더십”으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리더십의 형태는 로마의 정치조직과 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다. 특히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안수제도는 제도적 서열구조를 더욱 강화시켰다. 중세의 리더십은 더 이상 사도적 리더십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대신 계층적 성직의 권위에 따라 사도성이 정의되었다. 이러한 성직 중심의 리더십 구조는 오늘날에도 그 영향력이 막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종교개혁 시대에 들어오면서 개신교 내에서 성직자 중심의 리더십은 여전히 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개신교의 리더십은 설교와 가르침을 중심으로 바른 교리를 수호하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비록 종교개혁이 만인제사장직 개념을 제시하기는 했으나, 그것은 구원론적으로 이해되었고 교회론적으로는 실천되거나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성직자와 신자들 간의 구분은 더욱 고착화되었고 오늘날 주류 개신교에서 변함없이 실행되고 있다. 종교개혁 시대의 리더십에 대한 반작용은 그 당시 소수였던 급진적 개혁자들이었던 재세례파와 신자들의 교회 전통[[31]](#footnote-31)에 의해 대안적 리더십의 형태로 나타났다. 17세기 중반 이후부터 시작된 계몽주의에서 리더십은 전문가의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계몽주의 세계관에 근거하여 실증적인 지식을 통해 전문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는 이러한 리더십 형성의 주요 기관이 되었다. 오늘날 신학교 교육의 핵심은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건조한 교육기관으로 변모해 버린 지 오래이다. 이러한 계몽주의 모더니즘의 전문가 중심의 리더십은 포스트모던 시대와 겹치면서 신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상담가, 매니저, 기술자로서의 리더십으로 강화되고 있다.[[32]](#footnote-32)

 교회를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운동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교회 리더십에 중대한 도전을 의미한다. 리더십 변화는 오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 만일 한국교회가 교회를 갱신하고 개혁하기 원한다면, 성서적 리더십의 회복과 재발견이 필요하다. 오늘날 교회가 목사와 교사, 그리고 전문가로서 리더십의 역할을 강조하므로 타문화를 향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선교적 열망과 관심이 식어지고 내부지향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교회가 되었다. 예를 들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필요만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할 때,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나 “잘 되는 나”와 같은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만족감에 도취되기 쉽다. 그의 책들이 초보 신자들에게 적극적인 삶의 에너지와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심어주어 신앙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데 매우 유익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앙생활 초기에 기독교 신앙과 교회에 대한 왜곡된 사고방식과 선입견이 주입될 때, 그들은 교회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더욱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복음의 핵심으로부터 괴리된 “건강과 번영의 복음”이라는 축소주의적이고 혼합주의적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신자들을 사역으로 동원하는 리더십의 형태는 통합적이어야만 한다. 통합적 리더십의 형태는 만인제사장직과 연관되어 있으며 성령의 은사로서 신자들을 사역자로 구비하는 리더십이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사역의 본질과 기독교 리더십의 본질을 가르치고 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이 5가지 리더십 역할들은 교회의 사역을 결정하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사역의 개념들은 성직자 중심의 계층적 직분에서 은사 중심의 기능으로의 전환을 요청한다.

 사도의 기능은 보통 지역을 이동하면서 행해졌는데, 이는 새로운 선교적 일을 개척 하고 그 발전 상황을 감독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기능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영적 실재들을 분별하며 그것을 제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하여 하나님 백성의 선교를 확장시킨다. 복음 전도자의 기능은 사람들이 믿음과 제자의 삶으로 반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목사의 기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양육하며 보호하고 돌봄으로써 목양하는 것이다. 교사의 기능은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것에 어떻게 순종할지를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들은 사역의 주요한 영역들이지만 서로 배타적이지는 않다.[[33]](#footnote-33)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주로 강조되었던 리더십 역할은 목사(성직자)와 교사(전문가)였다.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의 역할은 교회의 삶에서 대부분 배제되었다. 마이클 프로스트와 알란 허쉬는 에베소서의 사역 기능을 “리더십 구조”와 “교회의 사역”으로 묘사하며 사회학적으로 이 구조를 적용한다. 즉 사도는 기업가형으로서 조직의 사명을 제안하는 개척자이자 전략가이며, 선지자는 문제를 제기하는 질문가형으로서 현상유지를 깨고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도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복음전도자는 의사전달자와 모집가로서 조직의 메시지를 열정적으로 전달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며, 목회자는 조직의 구성원들을 돌보고 결속시켜 유대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교사는 전체를 잘 조직하고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이 구조는 어떤 한 기능이 동떨어져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작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는 생태학적으로 유기체이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규정된다.[[34]](#footnote-34)

 이러한 통합적 리더십은 교회에 비전을 제시하며, 예배를 새롭게 변화시키며,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과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역동적으로 수행하게 만든다. 이러한 선교적 교회의 리더십과 통합적이고 유기체적 사역 가운데서 교회의 구조와 조직이 형성되면, 복음에 근거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상황화된 교회의 구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본질적으로 교회의 목적은 “예배”이며,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예배를 통해 공동체가 형성되며, 공동체 구성원은 단순한 멤버십(membership)이 아니라 바디십(bodyship)으로서 기능하며 주어진 은사를 삶의 전 영역에서 실천하는 증인들이 된다. 즉,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35]](#footnote-35)

 만일 교회가 예배와 공동체와 증거의 균형을 상실하게 되면 내부지향적이 되거나 외부 지향적이 되기 쉬우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적 기관이 되기 쉽다. 교회 구조와 관련하여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나친 “건물 콤플렉스”에 걸려있다. 교회 건물인 예배당을 주로 구약시대의 용어인 “성전”으로 부르며, 교회 건물 구조에 따라서 조직을 한다. 사실 이러한 교회의 모습들은 성경이 제시하는 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회심 내러티브에 볼 수 있듯이, 복음은 세상을 향해 가라고 명하지만, 건물 중심의 교회는 다양한 계층들을 위한 안락한 “장소들”과 “절실한 필요들”을 채워주고 즉각적 효과들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시하며 “오라”고 홍보한다. 건물이 세워지면 교회의 프로그램과 재정이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건물이 되어 버린 것이다(삼하 7:5-7).

 워너(Rob Warner)는 이러한 생각을 오래된 성전식 사고로 규정하며 그 세계관적 가정을 설명한다: (1) 다른 종교들도 건물을 짓고 신성시하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연스럽다; (2) 올바른 예배는 잘 갖추어진 종교적 건물에서만 드릴 수 있다; (3) 교회 건물은 정해진 예배장소이므로 거룩한 공간이다; (4)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계시를 받는 유일한 장소는 교회 건물이다; (5) 교회 건물은 영구함과 안정성의 표지이다; (6) 그러한 교회 건물은 하나님이 “기독교 국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낸다; (7) 만일 교회 건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한다면, 다른 종교적 건물보다 더 웅장하고 인상적이어야 한다.[[36]](#footnote-36) 사실 예수는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교의 성전중심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혁명적인 변화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말씀하셨다.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대화와 토론과 식탁을 함께 하는 환대의 장소였다. 이러한 공동체의 개념이 4세기에 들어서면서 제도화된 국가교회의 형태인 웅장하고 거룩한 장소로 변질되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공동체 개념은 다분히 세속적인 경향으로 함몰되어가고 있다. 구조의 문제에서 교회가 취해야 할 성서적인 관점은, 교회가 제도나 조직이라기보다는 은사 중심의 유기체라는 것이다. 교회가 제도로서 기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도가 심화되고 고착되면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이 퇴색되어 제도화되고 화석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스나이더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교회의 예배가 약해지면, 교회의 모습은 인본주의적이며 주관적이 되고 전도의 열 심은 종종 사라지게 된다. 교회의 공동체가 빈혈 증세를 보이면, 신자들은 영적으 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자라나지 못하게 된다. 예배는 냉랭하고 형식적이 되며, 복음증거는 약해지거나 지극히 개인적이 되 어 버린다. 교회의 복음증거에 문제가 생기면, 교제는 내부 지향적이 되고 자기 중 심적이 된다. 교회는 생존에 급급한 나머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며, 성장이나 영 향력은 거의 사라지게 된다.[[37]](#footnote-37)

 초대교회 공동체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감격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종말론적인 소망의 공동체였다. 예배를 통해 초대교회 신자들은 약함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 약함의 능력 가운데 공동체의 결속과 대조사회적이고 대안문화적이며 대항문화적인 특성을 드러냈다(행 2-4; 고후 12-13). 이러한 약함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 복음의 역설이다. 인류학자인 빅터 터너(Victor Turner)는 은뎀부(Ndembu) 부족의 통과의례(rite of passage)를 연구했다. 은뎀부 부족의 통과의례 가운데 성인식은 분리(separation), 제한(liminality), 그리고 재통합(reintegration)의 과정을 거친다. 이 가운데 제한기(liminal stage)는 일종의 성인이 되기 위한 전환기를 가리킨다. 이 시기에 소년들은 친밀감과 유대감과 평등에 대한 생활양식을 발전시키며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이것은 코뮤니타스(communitas)라고 부른다. 이 코뮤니타스는 일상적인 사회구조와는 다는 반 구조(anti-structure)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38]](#footnote-38) 사실 초대교회의 예배와 공동체는 유대교의 핍박과 로마제국 하에서의 소수종교와 불법종교로서 리미널 경험을 통해 진정한 공동체인 코뮤니타스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의 교회가 진정한 초대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제한기를 통과하는 동안 시련과 고통을 함께 겪는 대항문화적인 특성을 구비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순례하는 백성들로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약함의 능력 가운데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처럼, 예배의 행위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철저히 “제한”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는 예배와 증언의 공동체로서 고통과 박해를 함께하며 더욱 견고해져 간 것을 볼 수 있다.

**V. 선교적 교회의 사례**

 선교적 교회의 사례연구에서 유의할 점들은 무엇인가? 지난해 12월 제2차 미션얼 컨퍼런스가 열리기 전 일상사역연구소 지성근 소장과 분당우리교회의 선교적 교회 태스크 포스 팀장인 장창수 선교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나눈 대화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연구와 적용에 대한 중요한 제언을 했다. 먼저, 우리가 선교적 교회의 사례를 연구할 때, 이론이나 강의보다 사례를 통한 현장의 이야기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선교적 교회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와 맞물려 우리의 예언자적 상상력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어떤 특정 모델을 모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사례에 대한 무비판적인 적용과 폐해의 문제가 대두될 소지 있기 때문이며, 선교적 본질에 천착한 교회론의 패러다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속칭 성공했다는 소수의 사례들은 본질에 대한 고민에서 멀어지게 만들 우려 있다. 또한 약간의 수정을 통한 접목을 서두를 위험성도 존재한다. 어떤 특정 사례들이 상이한 문화적 상황에서 잘 적용되어 “성공”(?)을 한다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사례가 본질을 대체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실패한 경우에도 문제인 이유는, 해당 사례의 실패에 원인이 있는 것이라기보다 선교적 교회론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근거한 세상으로 보냄 받은 교회라는 교회의 본질로서 선교에 대한 본질 무용론이 제기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교적 교회론의 근거가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와 선교적 성서해석학에 연구와 한국적 상황과 선교지의 상황 그리고 한인 디아스포라 상황에 대한 분석 등 각각의 독특한 상황에서의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회의 표지들 가운데 교회의 보편성(universality)은 교회의 지역성(locality)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즉, 보편적 교회는 세상, 좁게는 지역으로 보냄 받은 존재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적 목적은 하나님 나라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지역 안에서 영위된다. 교회가 세워진 곳은 지역이고 마을이며 동네이며, 교회는 지역사회의 문제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냄 받은 곳, 지역과 마을에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는 대행자(agent)는 교회와 신자들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은 “지역성”을 상실하고 지역과는 동떨어진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현재 한국의 선교적 교회 운동과 작은 교회 개척운동 가운데 “교회 생태계”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환경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모든 지역교회들이 공교회성을 유지하며 건강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북미의 상황에서 신자들의 영적 성숙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1,000개 교회들의 특징들을 가운데 하나가 지역 공동체와 연관된 목회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39]](#footnote-39) 이 교회들의 사역 형태는 교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지역민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을 함께 다루고 고민하며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습들이 국내의 선교적 교회 운동 가운데도 점차 나타나고 있다. 지역공동체에 참여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마을 만들기, 공정무역 제품을 통한 사업과 구입을 통한 윤리적 소비운동 전개, 마을기업으로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과 생협 운동, 카페, 도서관, 북까페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내의 교회개척은 주로 교단이나 대형교회의 지원을 통해 건물을 확보하고 사람들은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구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또한 평균 3년 정도 목회자 생활비를 지원받는데, 그 기간 동안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암묵적 전제가 작동한다. 3년 내에 성공의 지표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실패로 간주되어 재 개척을 위해 새로운 지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다반사이다. 그러나 교회개척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무거운 스트레스와 탈진, 그리고 생존을 위한 압박과 몸부림 등과 같은 요소들은 젊은 목회자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활력을 쉽게 앗아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사실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더 큰 어려움은 영적 침체로 인한 탈진으로 인한 심각한 우울증과 같은 현상이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교회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이해의 결핍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교회가 그 시작부터 건물과 숫자에 집착하는 경우, 지역이나 마을과는 괴리되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대상들로 전락시킨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면, 교회는 지역 안에 존재하는 “외딴 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들은 사실 중대형 교회들이나 초대형 교회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많은 신자들이 교회가 위치한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살면서 겨우 주일을 지키는 실정이다. 대형교회가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은 교회의 부흥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비록 교회가 지역을 위해 기부금을 내고 지역의 빈곤층들에게 도움을 주며, 다양한 사회복지와 구제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신들과 연관을 맺는 것을 두려워하기까지 한다. 한국교회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개교회주의를 유지하지만, 지역 속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차원은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효율적인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며, 손쉽게 크기와 숫자를 통해 교회성장을 측정한다고 간파한다. 프로그램에 의해 지배되는 교회는 불가불 계산가능성의 노예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계산가능성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맥도날드화의 또 다른 특징은, 불확실한 것들을 피하고 안전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교회들이나 교파들은 거대한 안정적 시스템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불확실한 요소들을 제거한다. 이런 교회들은 소위 성공을 보장하는 명품 프로그램들을 생산해 내고 생산능력이 없는 중소형 교회들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모방”한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들은 성경 이야기와는 상관없는 “허탄한 성공신화”로 포장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 교회는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한다. 통제는 “권력”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성직이 제도화되고 교회전통과 교리가 율법주의로 변질된다. 따라서 회심의 의미는 변질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자유를 상실하며 건물과 숫자와 프로그램을 우상화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 성경의 이야기 읽기와 듣기 그리고 다시 읽기와 다시 듣기를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 지체들의 이야기들을 무늬장식 천처럼 엮어 나간다. 성경은 하나님 백성들로 구성된 공동체의 이야기이며, 히브리서 11장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이야기들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전개된다. 보냄 받은 작은 공동체들의 이야기의 공통점은 매우 본질적이며 그 본질에서 그들의 일상의 삶과 일의 단순함을 드러낸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나누어지며 엮어지는 최상의 장소는 다름 아닌 “공동체”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선교적 교회의 본질과 사역, 그리고 구조를 추구하는 교회에 대한 사례들 가운데, 광주광역시에 있는 숨쉼교회(안석 목사) 사례는 기독교 왕국의 가치관에 근거한 건물과 숫자를 중시하여 끌어 모으는 성장모델을 과감히 버리고 세상(지역)으로 보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제시했다. 안석 목사가 언급한 내용들 가운데 선교적 교회와 연관된 핵심 단어들은, 지역(동네)과 함께하는 교회, 브랜드 교회에서의 탈피, 그리고 작은 교회의 독특한 이야기 창조였다. 현대인들 뿐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상실한 것들 가운데 핵심적인 교회론적 본질은 “공동체”이다. 숨쉼교회는 가족이 해체되고 역기능적인 가정들의 증가로 인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살림” 공동체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숨쉼교회는 브랜드 교회들이 제시하는 것들을 모방하기보다는 지역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지역으로 들어가는 “성육신적”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안석 목사는 한국교회가 추구해 온 기존의 성장 중심 구조의 “끌어들이는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1) 지역 공동체와 관계하지 않아도 성장할 수 있다; 2) 교회가 마을이나 동네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 3)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브랜드 교회로 변신을 추구한다; 4) 작은 교회에서 초대형 교회와 같은 브랜드 교회로의 변신을 모색한다. 이 같은 목표와 성과가 정한 기간 내에 달성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난다: 1)작은 교회 목회자와 신자들은 혼란과 실망에 빠져 정체성을 상실한다; 2) 자신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창조하는데 실패하므로 지역과는 상관없는 외톨이 작은 교회로 생존을 모색한다; 3) 지속적으로 브랜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환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

 안석 목사는 이에 대한 대안적 모델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사례로 제시한다: 1) 교회로 끌어 모으는 방식에서 세상으로 보내는 방식; 2) 신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는 것에서 지역사회의 필요들을 인식하고 관계 맺는 방식으로의 변화; 3) 교회에 모이는 구조에서 신자들과 지역의 불신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는 방식(사실 불신자들은 교회에 대해 거룩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음); 4) 기독교 왕국을 건설한다는 목표에서 교회의 모습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맛보게 하는 목표로의 전환; 5) 다른 교회들이 하는 것들을 무작정 모방하는 것에서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 숨쉼교회는 이러한 사역의 원리들을 위한 공간들인 책만세 도서관(21평), 북 카페 숨(35평), 예배 공간(10평)을 구비했다.

 숨쉼교회의 실천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1) 카페에서 공정무역 커피를 판매하며 공정무역 캠페인을 실시했는데, 인근 중학교 학생들이 캠페인에 동참하기 시작하여 100명의 지역주민들이 모임에 동참하게 되었다; 2) “우리 동네 영화제”를 월1회 개최하는데, 광주 영화제 집행위원장이 찾아와서 도서관에서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를 주도하게 되었다; 3) “책 읽는 숨소리”는 책 읽는 모임으로서, 동네 학교 선생님이 까페에서 차를 마시다가 도서관과 교회 이야기를 듣고 책 읽는 모임을 주선해서 그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책 읽는 모임을 이끌고 있다; 4) “하우스 콘서트”는 지역의 한 청년이 까페에서 친구를 위해 공연을 한 것을 계기로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다; 5) “도서관지기와의 대화”는 광주직할시 광산구 구청장이 교회가 있는 지역을 도서관 지역으로 선포해서 도서관과 관련된 지역인사들을 모시고 교회 도서관에서 대화를 제안하여 모임이 형성되었다; 6) “비폭력대화 모임”은 폭력적인 대화가 가정이나 학교, 직장 등에서 너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을 인식하고 주 2-3회 비폭력 대화 워크숍 모임을 갖는다; 7) 신생아 모자 뜨기를 통해 아프리카 신생아들에게 보내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발전되어 손수짜기 모임이 결성되어 털모자와 목도리를 짜서 겨울이 동사무소를 통해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한다; 8) 10대 청소년들이 부모와 1박 2일 동안 대화하고 공부하는 “기린가족캠프”를 만들었다; 9) 인근 중학교 학부모들의 그림전시회와 음악발표회를 도서관과 까페에서 실시하고 있다; 10) “손전등 산책”은 성폭력 사건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시민단체에서 경찰과 언론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무엇인가 해 보자는 의견을 안석 목사에게 제시해서 경찰, 언론, 동사무소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회의를 걸쳐 홍보와 캠페인을 벌이고 밤에 지역주민들이 손전등을 들고 아이들의 늦은 밤 귀가를 돕고 있다; 11) 작은 도서관 포럼을 실시하고 있다. 안석 목사는 숨쉼교회의 모델이 지속가능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원리와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지역교회는 주관자가 아닌 동역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2) 지역교회의 시설은 교회자체의 소유가 아닌 지역을 위한 공공성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 3) 지역의 삶에 참여하기 위해서 교회 예산에서 독립해야 한다; 4)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해 교회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지역을 향해 나가는 교회구조와 신자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5) 이 모든 활동들을 통해 참된 신앙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교적 교회의 사례들은 대도시, 중소도시, 그리고 농어촌 지역으로 분류되며, 서울과 같은 메가시티의 경우에는 주로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선교적 교회 운동은 교회개척과 맞물려 작은 교회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신학교에서도 한국교회의 현실을 직시하며 목회를 준비하는 신대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교적 교회 원리에 입각하여 교회 개척을 준비시키는 가운데 현장의 사례들을 연구하고 일터사역과 BAM과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대도시의 교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는 분당우리교회(이찬수 목사)가 대형교회의 구조에서 선교적 교회로의 변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몇몇 교회들이 작은 교회 운동에 참여하여 교회개척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선교적 교회의 원리를 적용하는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이며,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려는 목회자들이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40]](#footnote-40) 마지막으로 선교적 교회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원리들은 다음과 같다: 1)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세상(지역, 마을, 일터)으로 보냄 받았다는 선교적 의식; 2) 교회 생태계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여 지역 생태계를 이해하려는 노력; 3) 기존의 교회성장이나 전도 프로그램들을 통해 지역의 비그리스도인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 들이려는 시도에서 탈피하여 목회자와 신자들이 지역의 다양한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노력; 4) 제자도에 근거한 수평적 다수 리더십 구축과 지도자의 세속적 탐욕 제어장치 마련; 5) 숫자의 우상에 저항하여 분가/분립개척의 원리를 개척 초기부터 적용하여 네트워킹을 통해 건강한 교회생태계 구축; 6) 가나안 성도들과 다문화 가정들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해외선교에 대한 의식 고취.

**나가는 말**

 교회의 교회됨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교회는 그 본질상 선교적이라는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복음으로 돌아간 교회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하게 되며 그 분의 지상대위임령을 수행하는 제자직의 의미를 깨닫게 되며 복음을 삶의 전 영역에서 실천하는 능력을 얻게 된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이다. 위에서 언급한 선교적 교회의 특성들과 지표들과 숨쉼교회의 사례는 실천적 제안들을 담고 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 한국교회만큼 급속하게 성장하고 선교에 있어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둔 나라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교회의 상태를 진단해 보면, 교회가 지나치게 지배문화와 타협하고 있음을 직시하게 된다. 이런 교회의 실상에 대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 유랑하는 “가나안 성도”에 대한 종교사회학적 연구물들이 나오고 있는 이 때, 그들에 포용할 수 있는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한국교회가 현재의 상태를 벗어나 갱신과 개혁된 모습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의 30-50년 후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교회마다 어린이와 젊은이들의 수가 점점 더 줄어가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대체 그들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들이 40-50대가 되는 30-40년 후를 생각해 보면 교회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들어오지 않는가? 초대형교회들과 대형교회들은 아마 소형교회나 중형교회들보다 더 오래 생존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지나친 부유함과 세상에 동화되어 버린 한국교회의 모습에서 진정한 예배와 공동체와 증거의 모습을 발견하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황제를 비판하는 일은 어리석음의 극치를 이루는 바보들과 어릿광대의 모습을 통해 표현되었다. 즉 구약의 예언자 전통에서 기존의 지배문화에 근거한 왕권의 부패성을 신랄하게 질타하는 예언자의 소리를 월터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은 오늘날 거룩성을 상실하고 자본주의 소비문화에 순응하며 타협하는 교회를 향해 외치고 있다. 그는 현대 교회에 절실하게 필요한 예언자의 모습은 “지배문화의 의식과 인식에 맞설 수 있는 대안 의식과 인식을 끌어내고 키우고 발전시키는 예언자적 목회에 투신한 인물”로 그리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예언자적 대안 의식을 “예언자적 상상력”이라고 말한다.[[41]](#footnote-41)

 물론 한국교회가 복음의 진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다. 기존교회의 주변부에서 일어나는 소규모 갱신운동들과 한국교회의 해외선교운동은 희망의 줄을 놓지 않게 한다. 이제 한국교회는 주변부에서 일어나는 갱신과 개혁운동과 선교운동에서 변혁을 기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록 선교적 교회가 서구교회의 자기반성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서구교회가 경험한 전철을 되풀이 하고 있는 한국교회는 선교적 교회론을 통해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극복해 나갈 단초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그렉 호킨스·캘리 파킨슨, 『Move 무브: 영적 성장에 대한 1,000개 교회들의 증언』, 박소혜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3.

데이비드 보쉬, 『변화하고 있는 선교』, 김병길, 장훈태 역, 서울: CLC, 2000.

레슬리 뉴비긴, 『선교신학 개요』, 최성일 역,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5.

\_\_\_\_\_\_\_\_\_\_\_\_\_,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홍병룡 역, 마이클 고힌 해설, 서울: IVP, 2007.

성석환, “한인 디아스포라의 새로운 도전: 선교적 교회를 꿈꾼다,” 『목회와 신학』, 2014년 3 월호.

로잔신학위원회, “온 교회(The Whole Church),” Unpublished Article, 2009.

로잔운동, 『케이프타운 서약』, 최형근 역, 서울: IVP, 2014.

마이클 프로스트, 『위험한 교회: 후기 기독교 문화에서 선교적으로 살아가는 유수자들』, 이대헌 역, 서울: SFC, 2009.

마이클 프로스트, 앨런 허쉬, 『새로운 교회가 온다』, 지성근 역, 서울: IVP, 2009.

마이클 호튼,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복음 없는 현대 교회의 충격적 실상』, 김성웅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9.

베리 칼렌, 『급진적 기독교』, 배덕만 역, 서울: 대장간, 2010.

알란 록스버그, 『길을 잃은 리더들』, 김재영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월터 브루그만, 『예언자적 상상력』, 김기철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09.

크레이그 바르톨로뮤, 마이클 고힌, 『성경은 드라마다』, 김명희 역, 서울: IVP, 2009.

크레이그 반 겔더, 『선교하는 교회 만들기』, 최동규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2003.

크레이그 오토, 스테판 J. 스트라우스, 티모시 C. 테넌트, 『선교신학』(Encountering Theology of Mission), 최형근 외 역, 부천: 도서출판 존스북, 2012.

최형근, “본질에 충실한 작고 건강한 교회,” 『목회와 신학』 2014년 1월호.

폴 히버트, 『인류학적 접근을 통한 선교현장의 문화이해』, 김영동, 안영권 역, 서울: 죠이 선교회출판부, 1997.

하워드 스나이더, 『교회 DNA: 우리 시대 교회는 예수 DNA를 가졌는가?』, 최형근 역, 서울: IVP, 2006.

\_\_\_\_\_\_\_\_\_\_\_\_\_\_\_, 『참으로 해방된 교회』, 권영석 역, 서울: IVP, 2005.

Barnett, Homer G., *Innovation: Basis of Culture Change*, New York: McGraw-Hill, 1953.

Ford, Lnce, *Unleader: Reimagining Leadership-and Why We Must*, Kansas City, KC: Beacon Hill Press, 2012.

Forrester, Duncan B., “Lesslie Newbigin as Public Theologian," In *A Scandalous*  *Prophet: The Way of Mission After Newbigin*, Grand Rapids, MI: Eerdmans, 2002.

Guder, Darrell L., *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Grand Rapid, MI: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

Hirsch, Alan, *The Forgotten Ways*, Grand Rapids, MI: Brazos Press, 2006.

Hobbs, Walter C., "Method," In *Treasure in Clay Jars: Patterns in Missional*  *Faithfulness*, Lois Y. Barrett ed., Grand Rapids, MI: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4.

Hunsberger, George, “Acquiring the Posture of a Missionary Church," in *The*  *Church Between Gospel and Culture*, George Hunsberger and Craig Van Gelder eds.,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6

Newbigin, Lesslie, "Can the West Be Converted?" In *The Best of Bishop Lesslie*  *Newbigin*, New Haven, CT: Overseas Ministries Study Center, 1998.

\_\_\_\_\_\_\_\_\_\_\_\_\_\_\_\_\_\_, *Truth to Tell: The Gospel as Public Truth*, Grand Rapids, MI: Eerdmans, 1991.

\_\_\_\_\_\_\_\_\_\_\_\_\_\_\_\_\_\_, *Unfinished Agenda: An Autobiography*, Grand Rapids, MI: Eerdmans, 1985.

Rogers, Everett M., *Diffusion of Innovations*, 4th Edition, New York: Free Press, 1995.

Roxburgh, Alan, "What is Missional Church?" *Allelon Publishing*, 2007, [www.allelon.org](file:///C%3A%5CUsers%5CSong%5CDownloads%5Cwww.allelon.org).

Turner, Victor, *The Ritual Process*, New York: Aldine De Gruyter, 1969.

Van Gelder, Craig, *The Ministry of the Missional Church: A Community Led by the*  *Spirit*, Grand Rapids, MI: Baker Books, 2009.

Wainwright, Geoffrey, *Lesslie Newbigin: A Theological Lif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Wallace, Anthony F. C., "Revitalization Movements: Some Theoretical Considerations for Their Comparative Study," *American Anthropologist* 58, April, 1956.

Weston, Paul ed., *Lesslie Newbigin: Missionary Theologian, A Reader*,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6.

1. 크레이그 바르톨로뮤, 마이클 고힌, 『성경은 드라마다』, 김명희 역, (서울: IVP, 2009), 280. [↑](#footnote-ref-1)
2. Lesslie Newbigin, "Can the West Be Converted?" In *The Best of Bishop Lesslie Newbigin* (New Haven, CT: Overseas Ministries Study Center, 1998), 11-17. [↑](#footnote-ref-2)
3. 뉴비긴의 생애와 신학에 관해서는 다음의 자료들을 참고하라. Lesslie Newbigin, *Unfinished Agenda: An Autobiography* (Grand Rapids, MI: Eerdmans, 1985); Geoffrey Wainwright, *Lesslie Newbigin: A Theological Lif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aul Weston ed., *Lesslie Newbigin: Missionary Theologian, A Reader*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6). [↑](#footnote-ref-3)
4. 레슬리 뉴비긴,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홍병룡 역 (서울: IVP, 2007), 256. [↑](#footnote-ref-4)
5. 레슬리 뉴비긴, 『선교신학개요(The Open Secret)』, 최성일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5), 77, 80. [↑](#footnote-ref-5)
6. Duncan B. Forrester, “Lesslie Newbigin as Public Theologian," In *A Scandalous Prophet: The Way of Mission After Newbigin* (Grand Rapids, MI: Eerdmans, 2002), 3-4. [↑](#footnote-ref-6)
7. Lesslie Newbigin, *The Reunion of the Church* (London: SCM Press, 1948), 18, 11, 19. Geoffrey Wainwright, *Lesslie Newbigin: A Theological Lif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82에서 재인용. [↑](#footnote-ref-7)
8. George Hunsberger, “Acquiring the Posture of a Missionary Church," In *The Church Between Gospel and Culture*, George Hunsberger and Craig Van Gelder eds.,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6), 289. [↑](#footnote-ref-8)
9. Ibid., 290. [↑](#footnote-ref-9)
10. Cf. Darrell L. Guder, *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Grand Rapid, MI: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 11-12. 구더는 선교적 교회를 성서적, 역사적, 상황적, 종말론적, 그리고 실천적이라고 규정한다. 특히 앞의 4가지 특성들에서 나오는 마지막 특성인 선교적 교회의 실천적 특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기 위해 어떻게 구비되고 형성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한다(마 28:18-20). [↑](#footnote-ref-10)
11. Lesslie Newbigin, *Truth to Tell: The Gospel as Public Truth*, (Grand Rapids, MI: Eerdmans, 1991), 85. [↑](#footnote-ref-11)
12. Duncan B. Forrester, "Lesslie Newbigin as Public Theologian," 5. [↑](#footnote-ref-12)
13. 필자는 2013년 5월 베트남 호치민 지역 한인선교사회 주최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에서 선교적 교회에 관해 강의하고 선교사들의 사역을 돌아보았는데, 선교현장에서도 선교적 교회 운동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footnote-ref-13)
14. 성석환, “한인 디아스포라의 새로운 도전: 선교적 교회를 꿈꾼다,” 『목회와 신학』, 2014년 3월호, 108-114 참조하라. [↑](#footnote-ref-14)
15. 크레이그 오토, 스테판 J. 스트라우스, 티모시 C. 테넌트, 『선교신학』(*Encountering Theology of Mission*), 최형근 외 역, (부천: 도서출판 존스북, 2012), 310-313 참조하라. [↑](#footnote-ref-15)
16. 문화변화 모델들에 관하여는, Anthony F. C. Wallace, "Revitalization Movements: Some theoretical Considerations for Their Comparative Study," *American Anthropologist* 58 (April, 1956): 264-275; Homer G. Barnett, *Innovation: Basis of Culture Change* (New York: McGraw-Hill, 1953); Everett M. Rogers, *Diffusion of Innovations*, 4th Edition, (New York: Free Press, 1995)을 참조하라. [↑](#footnote-ref-16)
17. Craig Van Gelder, *The Ministry of the Missional Church: A Community Led by the Spirit* (Grand Rapids, MI: Baker Books, 2009), 48. 상황화(재상황화)에 관한 논의는, 폴 히버트, 『인류학적 접근을 통한 선교현장의 문화이해』, 김영동, 안영권 역, (서울: 죠이선교회출판부, 1997)을 참조하라. [↑](#footnote-ref-17)
18. Ibid., 52-54. [↑](#footnote-ref-18)
19. Ibid., 54-56. [↑](#footnote-ref-19)
20. Ibid., 54. 선교적 교회의 고백적 특성은 종교개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ecclesia semper reformanda*), 선교적 특성은 상황화에 근거를 두고 있다(*ecclesia semper formanda*). [↑](#footnote-ref-20)
21. 크레이그 반 겔더, 『선교하는 교회 만들기』, 최동규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2003), 62. [↑](#footnote-ref-21)
22. Alan Roxburgh, "What is Missional Church?" Allelon Publishing, 2007, [www.allelon.org](file:///C%3A%5CUsers%5CSong%5CDownloads%5Cwww.allelon.org). [↑](#footnote-ref-22)
23. 로잔신학위원회, “온 교회(The Whole Church),” Unpublished Article, 2009. [↑](#footnote-ref-23)
24. 이에 관한 논의는, 최형근,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 『선교신학』15집, 한국선교신학회 편, 2005를 참조하라. [↑](#footnote-ref-24)
25. Walter C. Hobbs, "Method," In *Treasure in Clay Jars: Patterns in Missional Faithfulness*, Lois Y. Barrett ed., (Grand Rapids, MI: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4), 159-172. [↑](#footnote-ref-25)
26. Alan Hirsch, *The Forgotten Ways* (Grand Rapids, MI: Brazos Press, 2006), 143-144. [↑](#footnote-ref-26)
27. 최형근, “본질에 충실한 작고 건강한 교회,” 『목회와 신학』2014년 1월호, 59. [↑](#footnote-ref-27)
28. Lnce Ford, *Unleader: Reimagining Leadership-and Why We Must* (Kansas City, KC: Beacon Hill Press, 2012) 참조. [↑](#footnote-ref-28)
29. 로잔운동, 『케이프타운 서약』, 최형근 역, (서울: IVP, 2014), 105-106. [↑](#footnote-ref-29)
30. Darrell L. Guder, *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185-188. [↑](#footnote-ref-30)
31. 이에 대해서는, 베리 칼렌, 『급진적 기독교』, 배덕만 역, (서울: 대장간, 2010)을 참조하라. [↑](#footnote-ref-31)
32. Darrell L. Guder, *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190-198 참조하라. [↑](#footnote-ref-32)
33. 마이클 프로스트, 앨런 허쉬, 『새로운 교회가 온다』, 지성근 역, (서울: IVP, 2009), 305-306. [↑](#footnote-ref-33)
34. Ibid., 310-313. Cf. 교회의 DNA로서 유기체와 생태학적 관점에 대해서는, 하워드 스나이더, 『교회 DNA: 우리 시대 교회는 예수 DNA를 가졌는가?』, 최형근 역, (서울: IVP, 2006) 참조하라. [↑](#footnote-ref-34)
35. 하워드 스나이더, 『참으로 해방된 교회』, 권영석 역, (서울: IVP, 2005), 107. [↑](#footnote-ref-35)
36. Rob Warner, *21st Century Church* (London: Hodder & stoughton, 1993), 131. 마이클 프로스트, 앨런 허쉬, 『새로운 교회가 온다』, 136-137에서 재인용. [↑](#footnote-ref-36)
37. 하워드 스나이더, 『참으로 해방된 교회』,, 129. [↑](#footnote-ref-37)
38. Victor Turner, *The Ritual Process* (New York: Aldine De Gruyter, 1969), 94-130. 이에 관한 심층적 논의에 관해서는 마이클 프로스트, 『위험한 교회』, 이대헌 역, (서울: SFC, 2009), 213-261; 알란 록스버그, 『길을 잃은 리더들』, 김재영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129-168; Alan Hirsch, *The Forgotten Ways*, 217-241을 참조하라. [↑](#footnote-ref-38)
39. 그렉 호킨스·캘리 파킨슨, 『Move 무브: 영적 성장에 대한 1,000개 교회들의 증언』, 박소혜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3) 참조. [↑](#footnote-ref-39)
40. 대도시 중대형 교회 모델: 분당우리교회(이찬수 목사), 성암교회(조주희 목사), 춘천동부교회(김한호 목사) 등이다. 대도시 작은교회 모델: 함께하는 교회(김성률 목사), 동네 작은교회(김종일 목사), 예수촌 교회(김태민 목사, 메노나이트) 등이며, 농어촌 작은교회 모델은 (아산) 송악교회(이종명 목사), 초계중앙교회(이진용 목사, 경남 합천, 까페 도토리의 꿈) 등을 들 수 있다. 선교적 교회 사례들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의 “일상생활사역연구소”를 통해 볼 수 있다. [↑](#footnote-ref-40)
41. 월터 부루그만, 『예언자적 상상력』, 김기철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09), 11. [↑](#footnote-ref-41)